북한 기도회

2023년 11월

기도제목 1.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급속도로 밀착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탄약 거래와 첨단 무기 기술 지원 등 군사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러시아로의 탄약 공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북한으로의 기술 지원은 대북 제재의 무력화와 핵무기 개발 촉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평화가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약화되고 군사적 협력 시도가 제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러우 전쟁 장기화 및 북한을 위시한 핵군비경쟁이 억제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제목 2. 러시아의 북한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동안 러시아는 유엔난민기구의 확인을 받은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망명을 인정하는 등 타 북한 우방국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여러 한인 선교사들이 공식/비공식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역학관계 변화로 러시아의 북한선교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 변화 뿐 아니라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러 관계가 안정되어 선교사님들의 체류와 활동에 더 큰 제약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앞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대규모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사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바롭스크에서 북한 벌목공과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1995년 피살당해 순교한 이주헌-이계월 선교사 부부>

기도제목 3. 북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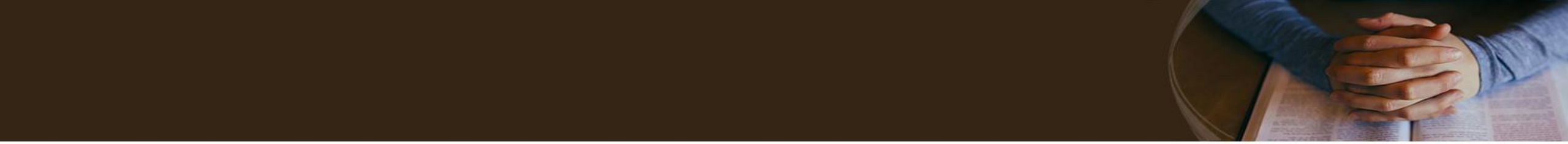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 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들이 있으며, 이 중에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규모나 역량은 부족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박해를 이겨내고 생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 파견된 북한 사람과의 접촉도 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세계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의 측면에서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4.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이후 충분한 에너지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사용 등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며 에너지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북한 서민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 내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고, 선교 현장에서도 올 한해에도 여러 지하교회가 습격을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종교활동 관련 처벌 규정>

기도제목 6.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8월 29일, 중국 단동을 출발해 북한 신의주로 향한 북송버스 (R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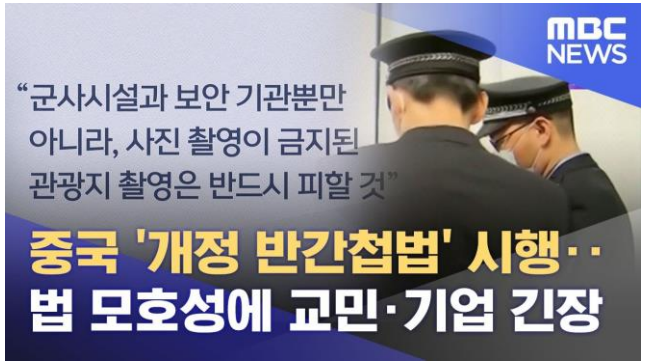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8월 말 외화벌이 일꾼 및 유학생 출신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탈북자 100여명이 강제 송환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10월 9일에는 중국에 수감중이던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북한 인권 단체는 국경지역 변방대에 수감되어 있던 약 2천 6백여명의 탈북자가 이미 모두 북송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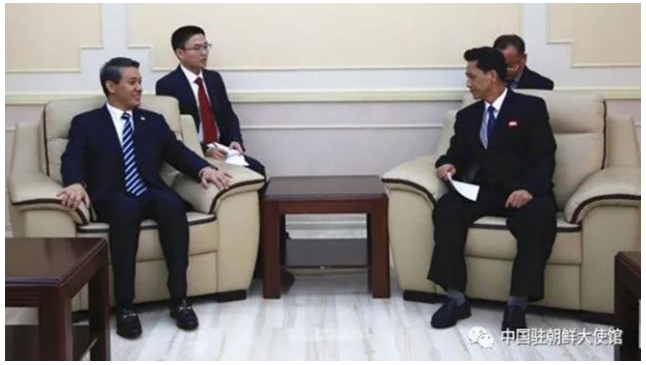
북송 당하는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7. 해외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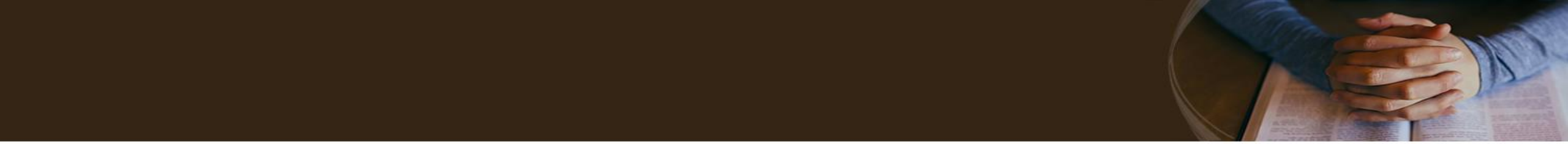
중국의 관영매체 CCTV에 따르면, 북한이 9월 25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9월 21에는 왕야쥔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의 정성일 국가관광총국장과 최경철 보건상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 단체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규모의 관영목적의 왕래만 포착되고 있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곧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선교활동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사역이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정성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장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 (주북중국대사관)>



기도제목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TWR),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라디오는 중요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막고자 방해 전파를 송출하고 비사 단속반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은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